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1 월의 선교편지

사랑하는 교회들과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 드립니다.

작년 12 월에 보내 드려야할 편지가 조금
늦었습니다. 성탄절과 새해는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저희는 미국에서 막내
베키가 단짝친구와 함께 와서 성탄절과
새해를 너무나 뜻 깊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속 4: 6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소년원 사역: 소년원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일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드러누운 아이들,
계속 깍깍 거리고 장난 치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법과 자세, 은혜를 받을 마음
준비를 시키는 것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심을 느낍니다. 요즘은

찬양에 힘과 은혜가 있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순서도 아이들이 조금씩 (기도와 성경 요절 읽기) 참여하도록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도망간 Aldair,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Estefany, Yanelly, Kahory, Diana,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곳에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Sama(농촌)사역: 학교 교장이 늘 우리 사역을 힘들게 하여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데, 작년에 엘리사리오 목사님이 교인들과 기도하면서 땅을 사서 Sama 에 교회를 건축 하셨습니다. 여러번 학교에서 사역을 못하는 일로 속상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12 월 성탄절 행사를 교회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은 삼마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아주 즐겁습니다. 1 월 19 일에 시작하는 수련회에 삼마의 청소년 아이들

9 명이 참석합니다. 농촌의 아이들이 수련회 모임에 처음 가는데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삼마에 주일 학교를 섬길 일꾼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Vila-Vila(어촌)사역: 작년 11 월에 주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2 주전에는 토요일 밤에 창문을 깨고 도둑이 들었었습니다. 그땅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 할것이 아니라 이렇수록 더욱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CEDIF (복지센타)사역: 어르신들은 작년 12 월에 버스를 대절해서 바닷가 빌라빌라 저희 도서실에 오셔서 즐거운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소풍을 나오시니 흥이 나서서 바다 소리에 맞춰 찬양과 춤을 한바탕 추시고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다시 센타로 돌아 가셨습니다. 매주 배우는 성경공부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UPT (사립 대학교)사역: 저희 리더중에 우빠때(스페니쉬로) 대학에 관광학 교수가 있습니다. 늘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힘들어도 버틴다고 합니다. 함께 1 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문을 두들일까? 했는데, 작년에 미국에서 단기팀이 오셔서 한국 문화의 밤을 열어 한국 부채 춤, 한복 입어보기, 음식과 믹스 커피를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는 좋은 이미지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일주일 1 번씩 성경공부를 통해 도움을 주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우리끼리 기도로 믿음의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UPT 대학의 젊은 영혼들의 마음에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모래산이 빙 둘러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사역들이 꼭 이 모래산 사막 같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칩니다.

올 2026 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이곳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아가갑시다.

저희들이 주님의 세심한 음성에 기울이며 나의 선교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Vila Vila 어촌에서 드러지는 주일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2. UPT 대학교에서 성경공부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3. 소년원 오후 주일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4. Sama 농촌에 엘리사리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Misión Shammah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5. 자녀들 (샬롬, 죠이스가정, 베키)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